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2년 11월 14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4

- 건화물선** 지난 주 케이프선 운임 12,823달러/일 기록,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와 부동산 규제 지원
-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지난주 대비 135.9p 하락한 1,443.3p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5.8p 하락한 102.0 기록,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확대에 의한 원유 수요 약세로 시황 하락세

윤재웅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컨테이너 공급망 개선을 위한 대비 필요

- ▶ 물류기업인 Toll Group은 컨테이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5년간 1,43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이번에 설립된 혁신센터는 컨테이너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여 운송 구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예정임
 - 지난해 겪은 컨테이너 물류대란으로 선사들은 신조발주를 늘렸지만 해상 운송 구간이 아닌 항만과 육상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물리적인 선대 확장보다는 컨테이너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간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
- ▶ 공급망은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으며 향후에도 더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겠지만 아시아 다른 시장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최근 Toll Group은 한국에 20,000㎡의 물류창고를 개장하였으며 몇 년 안에 인도 뭄바이에도 창고를 개발할 예정임. 향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창고 개발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2904/Ship-orders-provide-no-answer-to-supply-chain-crunch>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중국 광저우, 코로나 확진 증가로 인해 봉쇄

- ▶ 중국의 최대 제조 및 항만 허브 중 하나인 광저우(Guangzhou)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 봉쇄 조치가 발생함
 - 이에 중국 광저우 주요 물류창고 핵심 클러스터가 위치한 바이윈(Baiyun) 지구의 폐쇄로 물류 흐름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현지 화물 운송업체에 따르면 바이윈 지구 공장에서 출하되는 화물은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며, 포산(Foshan)이나 순더(Shunde)와 같은 인접 제조 도시에서 난샤(Nansha)항으로 가는 화물은 여전히 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힘
-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산업 활동 및 물류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내년에 엄격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된다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발병 강도를 고려할 때 광저우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2867/Chinas-logistics-sector-raises-alarm-over-Guangzhou-lockdown>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중국 철광석 수요 급감, 호주 광산 업체에 타격

- ▶ 중국 정부의 자금유동성 및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부동산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여기에 호주산 철광석 생산량 증가가 더해져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
 - 현재 철광석 가격은 톤당 80달러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톤당 240달러 대비 크게 하락함.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세계 철강 수요 하락도 철광석 가격 하락을 부채질함
 - 이러한 호주산 철광석 생산량 증가는 3대 광산 업체인 리오 틴토(Rio Tinto), BHP, 포르테스큐 메탈 그룹(Fortescue Metals Group)의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기인함
- ▶ UBS의 자원 연구 공동책임자인 라클란 쇼(Lachlan Shaw)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의 최저점은 톤당 75~80달러로 전망했으며, 현재 철광석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계 주요 철강 업체들의 철광석 생산 계획을 고려할 때, 공급 과잉은 내년까지 지속되리라 분석됨. 다만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공급 감소가 향후 철광석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리오 틴토의 철광석 CEO 시몬 트롯(Simon Trott)은 현재 철광석 시장 약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철강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abc.net.au/news/2022-11-09/iron-ore-price-stalls-as-china-economy-slows/101625948>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중국 코비드 규제 완화, 아연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정책이 상당 부분이 개정됨. 이 같은 개선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기대로 인해 옥수수에서 밀, 구리에서 귀금속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함
 - 여행자 및 코로나바이러스 밀접 접촉자의 검역으로 인한 의무 격리기간을 줄였으며, 바이러스를 감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항공사 처벌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에 따른 위험자산에 관한 선호도 상승과 맞물려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를 강화 시킴
-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비금속 중 아연이 6.4%, 알루미늄이 5.9% 전일 대비 급등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두 선물은 14.50달러에 마감하여 전일 대비 높은 상승 폭을 보임
 - 원자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주가가 급등함. 센츄리알루미늄(Century Aluminium Co)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계적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 Corp)는 전일 대비 16% 상승함
 - 다만 중국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여전히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에 관한 국민의 공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됨에 따라, 코로나 정책 기조 변화는 느리고 신중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11/china-eases-quarantine-rules-flight-bans-in-covid-zero-pivo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11/commodities-surge-after-china-eases-covid-restrictions?srnd=markets-vp>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미국, 일부 국가 원유가격 상한제 동참하지 않아도 대러 제재 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

- ▶ 미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에도 원유, 석유제품 등 관련 대 러시아 제재 일부를 유지할 것을 시사함
 - 지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평화협상의 내용에 따라 제재도 조정되어야 하나 일련의 사건들을 참작하면 일부 제재는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인도, 튀르키예 등의 국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 시, 러시아 루블화 거래 비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 G7, EU 등은 가격 상한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원유 거래 시 필요한 보험, 금융,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제 대비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차단함
 - 옐런 장관은 인도, 중국, 아프리카가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함에 따라 러시아의 재정수익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상한제의 의미는 지속된다고 견해를 밝힘
 - 더욱이 인도 등이 원유 거래 시 필요한 보험, 금융, 해운 서비스를 서방에서 제공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며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됨을 시사함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xclusive-india-can-buy-much-russian-oil-it-wants-outside-price-cap-yellen-says-2022-11-11/>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러시아, 10월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처로 등극

- ▶ 지난 10월 기준,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원유공급처로 분석됨
 - 에너지 운송조사기관 보르텍사에 의하면 지난달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하루 93만 5,556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 10월, 인도의 원유 수입처에서 러시아는 2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이라크(20.5%), 사우디(16%)보다 높은 수치임
- ▶ 인도는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해왔으나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증대시켜옴
 - 작년 12월 기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3만 6,255배럴에 불과했으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원유 수입은 각각 95만 2,625배럴, 105만 배럴에 달함
 - 또한 올해 3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6만 8,600배럴에 그친 바 있으나, 6월에는 94만 2,694배럴로 대폭 증가하는 등 당분간 인도의 친러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russia-becomes-the-no-1-oil-supplier-for-india-in-october/articleshow/95240329.cms?from=mdr>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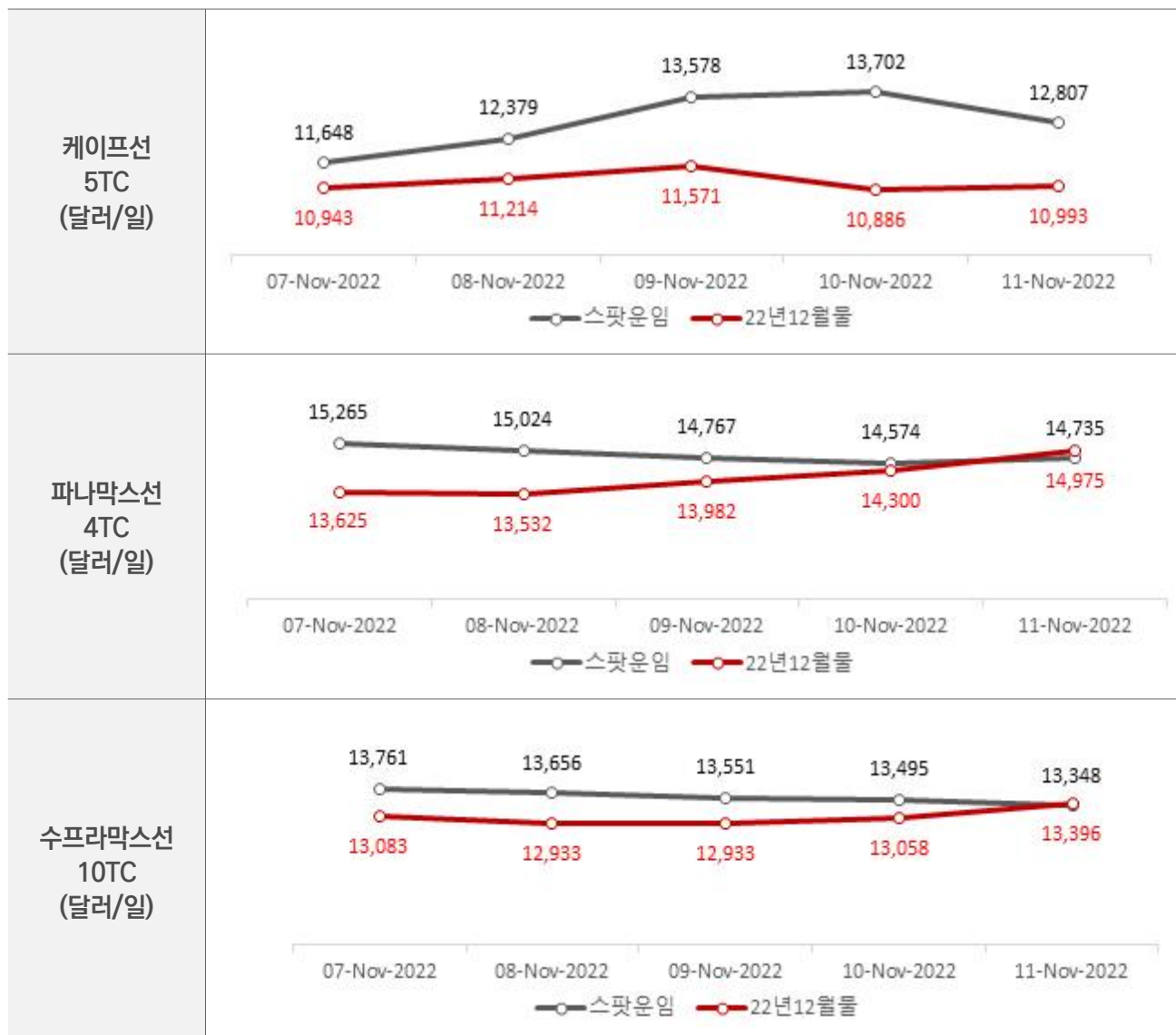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전망

구분	11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FFA 12월물 주간평균가격	전주대비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2,823	▲ 1,542	13.7 %	▲ 390 3.6 %
파나마스선 5TC (달러/일)	14,873	▼ -469	-3.1 %	▲ 72 0.5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3,562	▼ -1,207	-8.2 %	▼ -122 -0.9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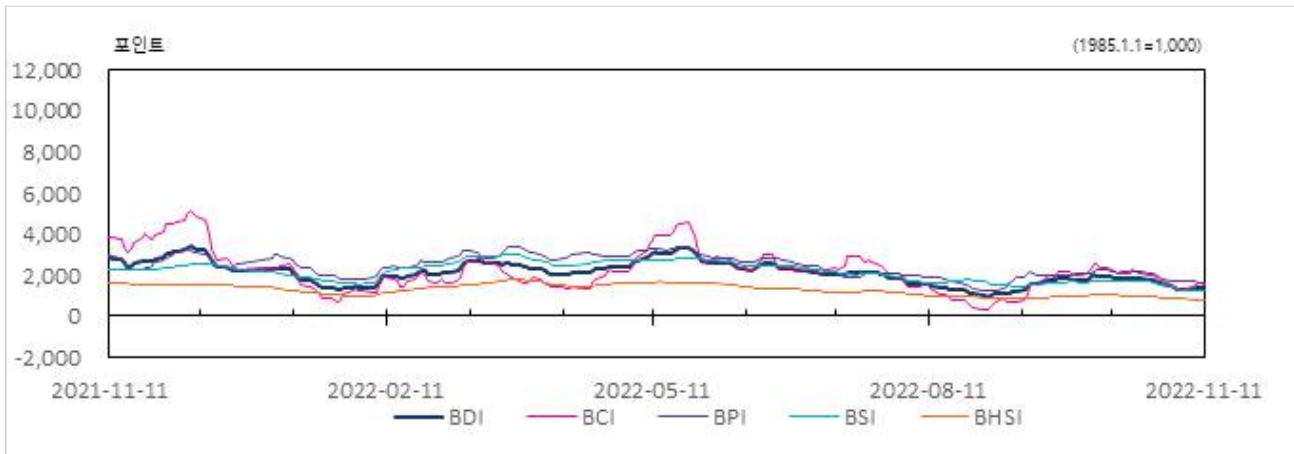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11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운임지수	BDI	1,366	11	965	3,369	2,012	1,303	5,650	2,943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2,823	1,542	2,505	38,169	16,488	10,304	86,953	33,301
	파나막스(5TC)	14,873	-469	10,956	30,746	21,612	10,936	38,952	25,887
	수프라막스(10TC)	13,562	-1,207	13,348	33,366	23,455	11,242	39,860	26,730
	핸디(7TC)	14,510	-906	14,174	32,166	22,463	11,695	37,109	25,702
1년 용선료	케이프	13,250	500	13,500	29,750	17,912	10,125	23,000	16,682
	파나막스	15,500	-500	11,200	23,375	14,721	9,625	16,125	12,535
	수프라막스	12,500	250	9,500	18,875	12,188	8,250	12,500	10,340
	핸디	10,750	-1,000	8,063	16,125	10,217	7,313	9,250	8,421
건화물선 시장(FFA)									
		2022년 12월물		2023년 1분기물		2022년물		2023년물	
		11월 2주	전주대비	11월 2주	전주대비	11월 2주	전주대비	11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1,121	390	6,579	644	12,148	619	12,788	279
	파나막스(5TC)	14,083	72	12,474	416	13,019	352	13,019	352
	수프라막스(10TC)	13,081	-122	11,104	164	11,755	266	11,171	220
	핸디(7TC)	13,292	244	11,206	226	11,647	238	10,854	183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의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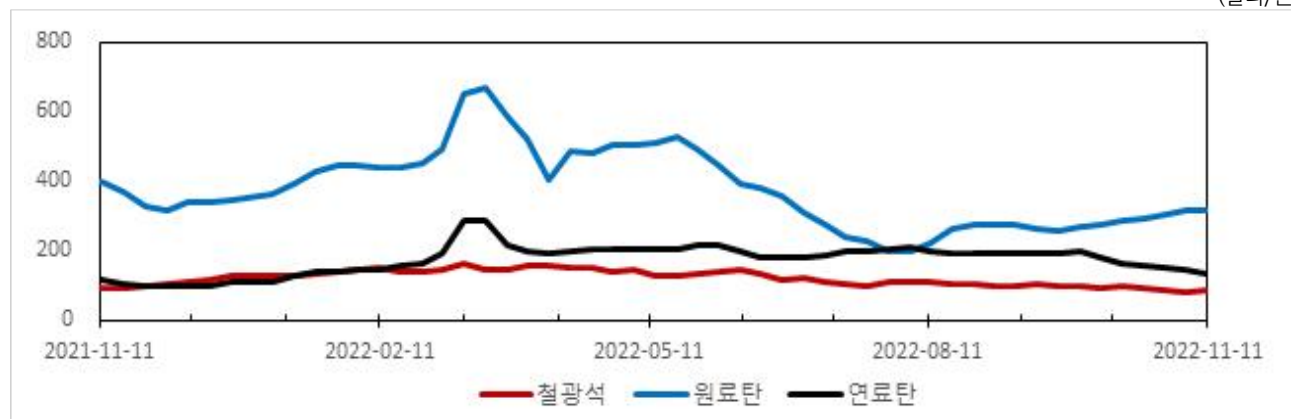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1년			
	11월 2주	11월 1주	전주대비차이				11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88.3	82.4	▲	5.9	7.2	%	98.1	161.1	89.8	226.5
원료탄	314.5	314.2	▲	0.4	0.1	%	403.0	220.5	102.2	403.0
연료탄	135.0	147.2	▼	-12.1	-8.2	%	146.2	84.3	52.0	175.4
대두	531.3	526.2	▲	5.1	1.0	%	452.2	500.6	444.3	589.0
옥수수	261.3	270.6	▼	-9.3	-3.4	%	222.7	224.2	185.1	278.4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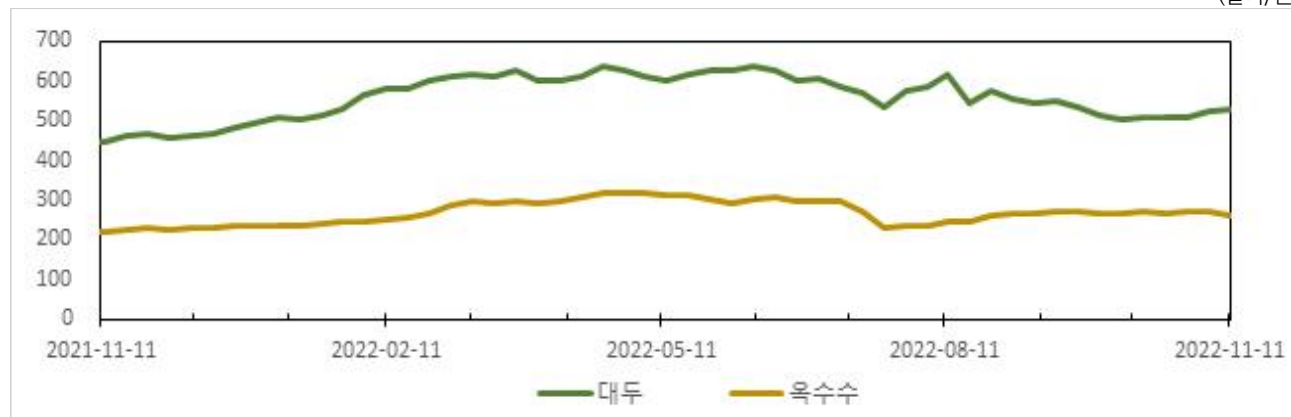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케이프선 : 지난 주(11월 1주) 대비 13.7% 상승한 12,823달러/일 기록

(운임) 케이프선 운임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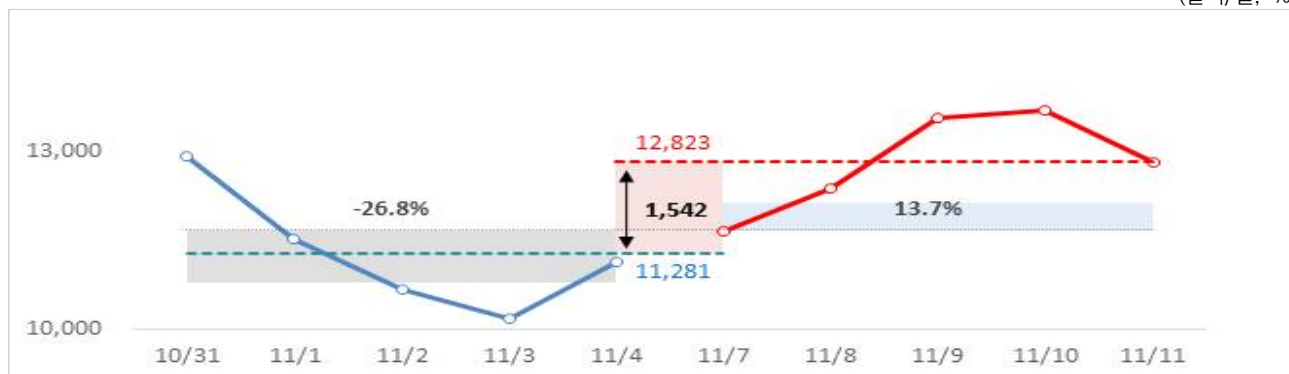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강도 완화 기대감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시장 수요 회복 기대감을 상승시킴

(동향)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와 부동산 규제 자원

-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소식이 시장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 초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이 시장 내에 팽배하며 운임의 상승을 이끌었으나, 10일을 기점으로 하락함
-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격리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 통제 조치'를 발표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다음 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제9판 코로나19 방역 방안'을 발표한 직후, 코로나 방역 정책 기조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시장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당장 방역 완화가 힘들 것이며,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한편에서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고 시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평가임
- 다만 코로나19 방역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당일인 11일 중국 당국이 대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 침체회복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정책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평가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부진해진 수요와 위안화 약세, 제철소의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제철소가 올해 겨울철 조강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1월 2주	11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1,546	1,360	▲ 186	13.7%
스팟운임(5TC)	12,823	11,281	▲ 1,542	13.7%
용선료	6개월	13,000	▲ 1,000	8.3%
	1년	13,250	▲ 500	3.9%
	5년	14,125	▲ 250	1.8%
FFA	12월물	11,121	▲ 390	3.6%
	'23년 1분기물	6,579	▲ 644	10.9%
	22년	12,148	▲ 619	5.4%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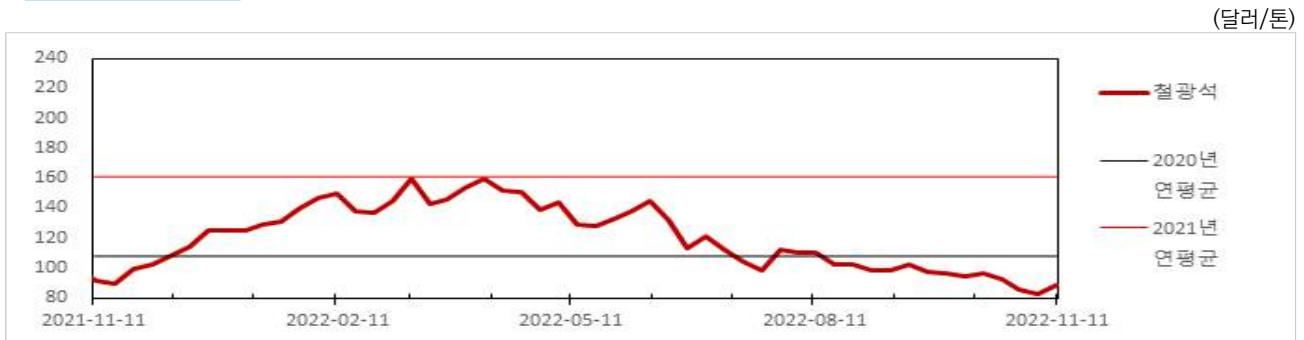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7.2% 상승한 88.3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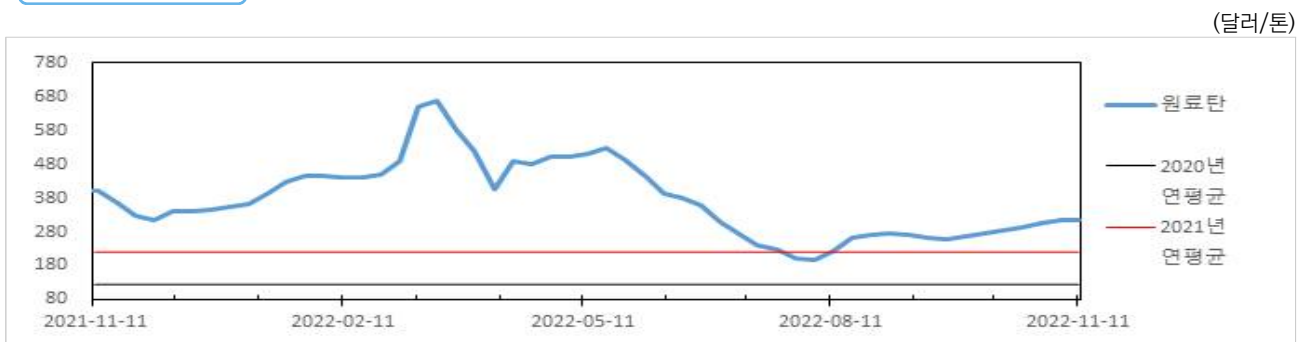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0.1% 상승한 314.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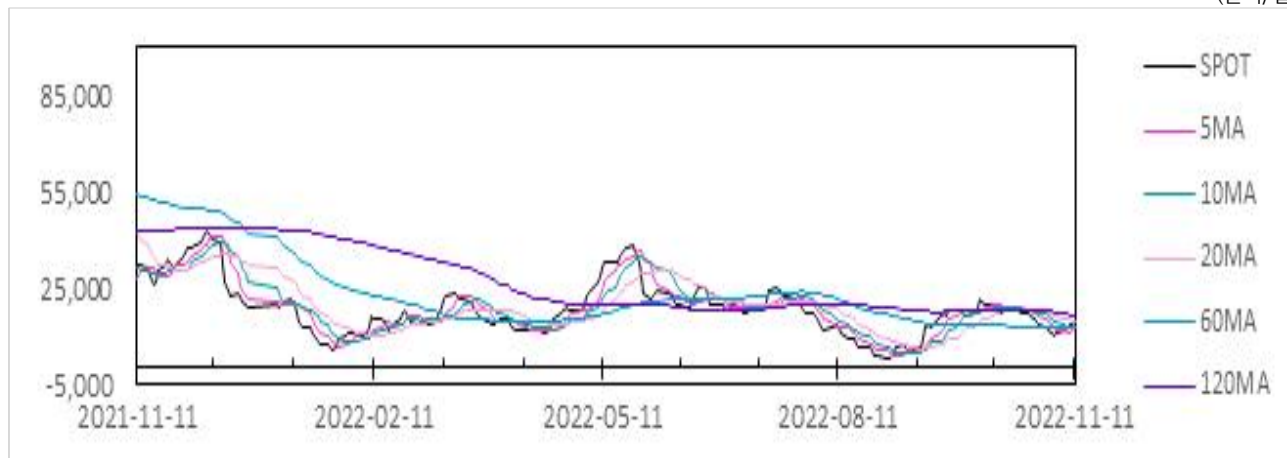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파나막스선 : 지난 주 대비 3.1% 하락한 14,873달러/일 기록

(운임) 파나막스선 운임의 낙폭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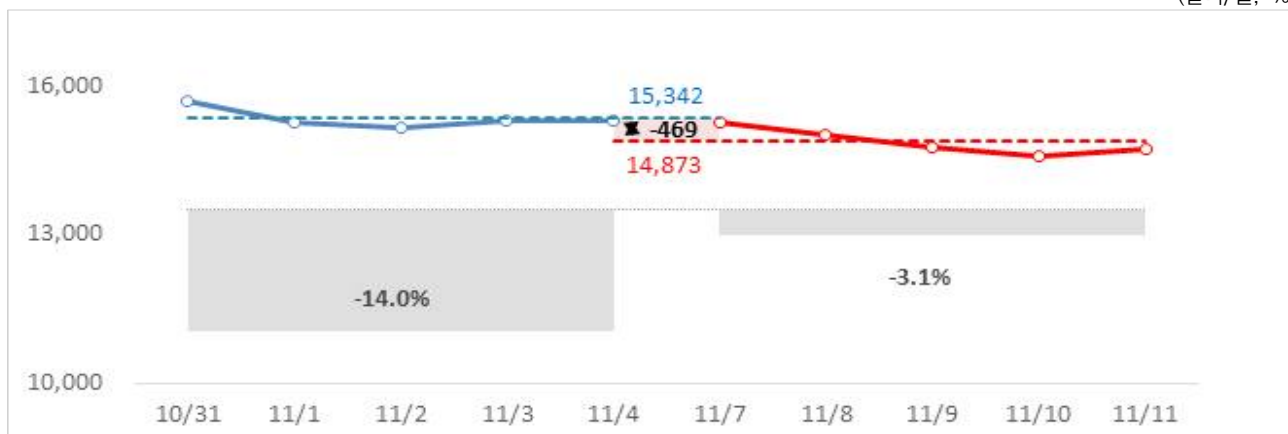
- 중국의 대두 수요 회복 기대감과 미국, 브라질 대두의 시장 유입량 증가 기대에 운임의 낙폭이 축소됨

(동향) 미국의 대두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 전망치 상향 조정

- 지난 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 세계농업 수급 전망보고서(WASD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에 따르면 2022/23 시즌 미국 대두의 기말재고량과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
- 미시시피강의 수위 저하 문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대두 물량이 제한되고 있으나, 하반기 미국 대두 수출량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임
- 또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미국의 대두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지난 4일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CPI)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한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두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1월 2주	11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1,652	1,705	▼ -52	-3.1	%
스팟운임(5TC)	14,873	15,342	▼ -469	-3.1	%
용선료	6개월	17,750	▼ -750	-4.2	%
	1년	16,000	▼ -500	-3.1	%
	5년	13,250	-	-	%
FFA	12월물	14,010	▲ 72	0.5	%
	'23년 1분기물	12,058	▲ 416	3.5	%
	22년	12,667	▲ 352	2.8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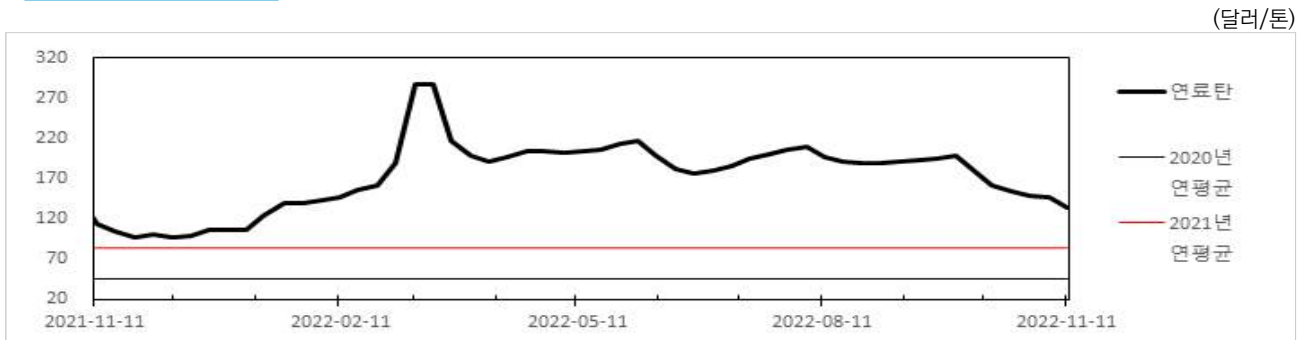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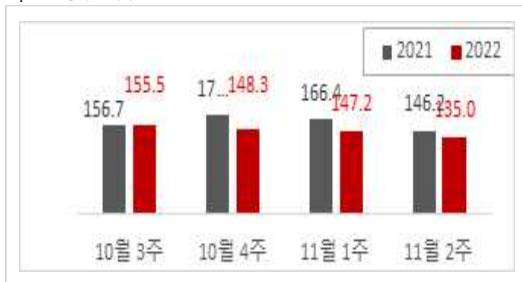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8.2% 하락한 135.0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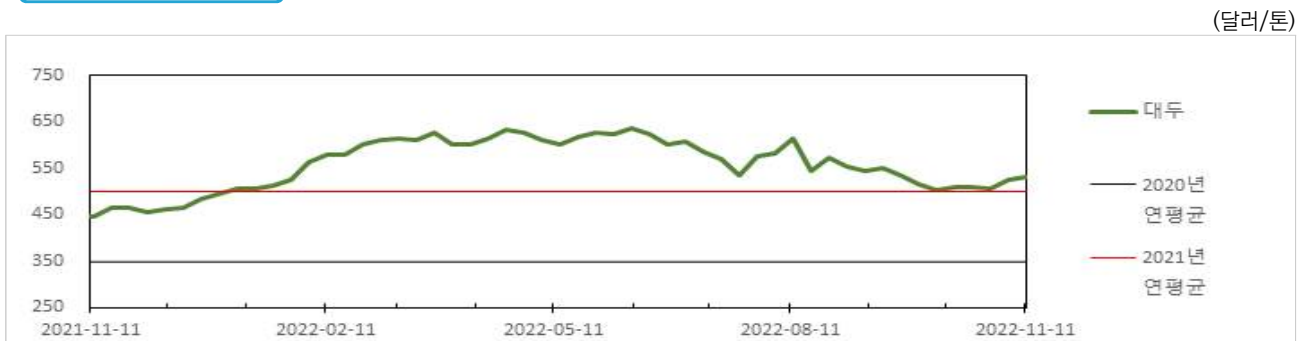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10월 3주	155.5	▼ -5.8	-3.6	%
10월 4주	148.3	▼ -7.2	-4.6	%
11월 1주	147.2	▼ -1.1	-0.8	%
11월 2주	135.0	▼ -12.1	-8.2	%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4.7% 상승한 531.3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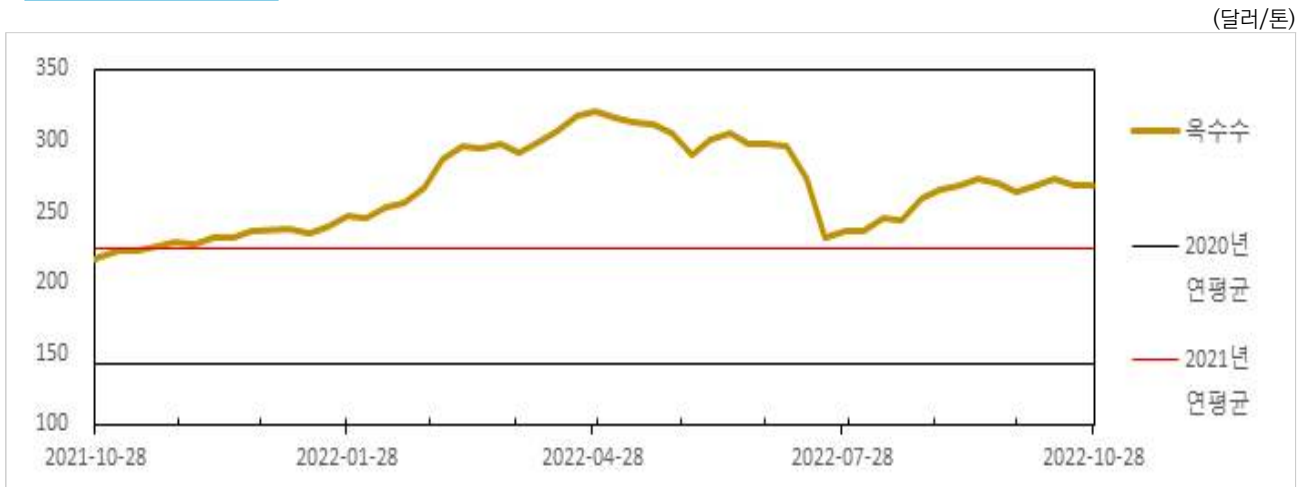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10월 3주	508.9	▲ 5.4	1.1	%
10월 4주	508.3	▼ -0.7	-0.1	%
11월 1주	507.5	▼ -0.8	-0.2	%
11월 2주	531.3	▲ 23.8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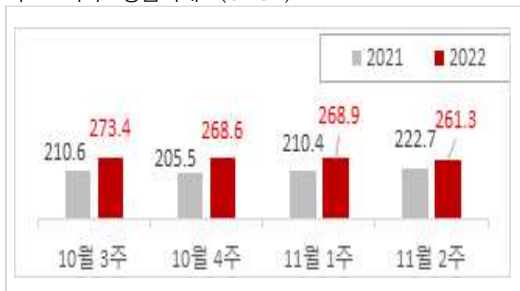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2.8% 하락한 261.3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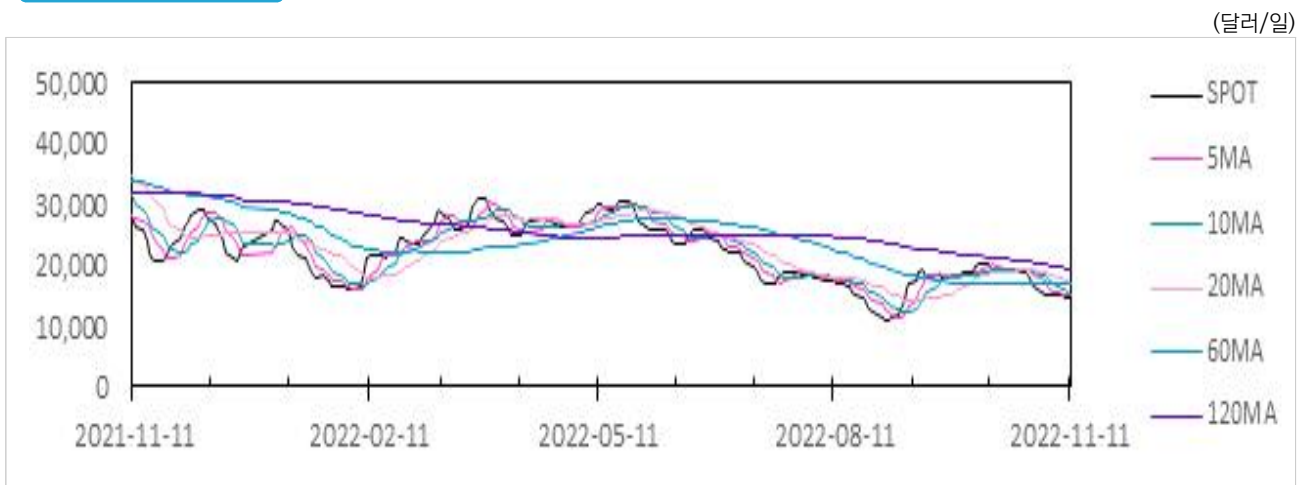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10월 3주	273.4	▲ 5.1	1.9	%
10월 4주	268.6	▼ -4.8	-1.7	%
11월 1주	268.9	▲ 0.4	0.1	%
11월 2주	261.3	▼ -7.6	-2.8	%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 대비 8.2% 하락한 13,562달러/일 기록

(운임) 수프라막스선 운임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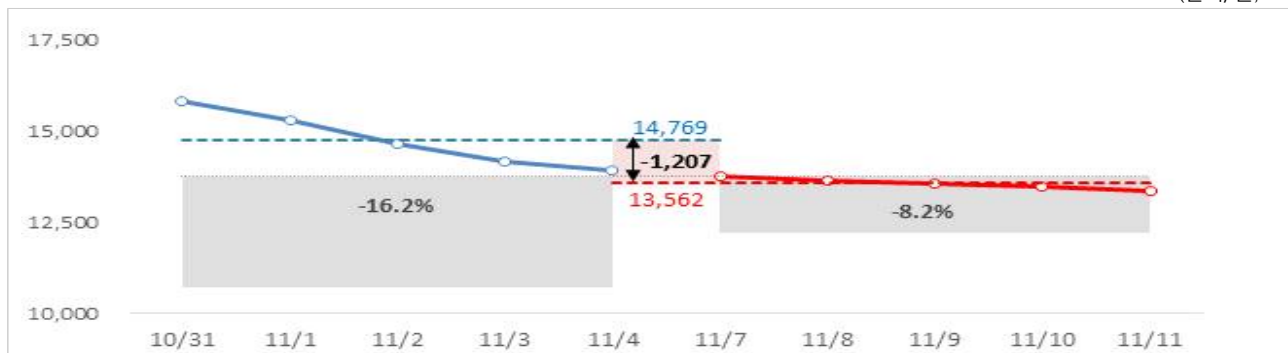
- 가용선박수 증가에도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화물량이 제한되어 운임이 하락함

(동향) 아르헨티나 밀 수확량 감소 전망, 남아공 트랜스넷 열차 탈선

- 아르헨티나의 2022/23 밀 수확량이 가뭄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임.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2,300만 톤의 밀을 생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 이후에 주요 밀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했으나, 이번 시즌은 1,180만 톤의 밀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 수요와 수출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로이터에 따르면 남아공 국영 철도 회사 트랜스넷(Transnet)이 운영하는 열차가 외부 공격에 경로를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함. 열차는 수출용 석탄을 싣고 리차드 베이 석탄 터미널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남아공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대신해 석탄을 수입하면서 남아공 산 석탄에 대한 유럽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앞선 사고와 같이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출 일정에 차질이 재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1월 2주	11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1,233	1,343	▼ -110	-8.2	%
스팟운임(10TC)	13,562	14,769	▼ -1,207	-8.2	%
용선료	6개월	13,000	▼ -1,000	-7.1	%
	1년	12,500	▲ 250	2.0	%
	5년	11,500	▼ -750	-6.1	%
FFA	12월물	13,081	▼ -122	-0.9	%
	'23년 1분기물	11,104	▲ 164	1.5	%
	22년	11,755	▲ 266	2.3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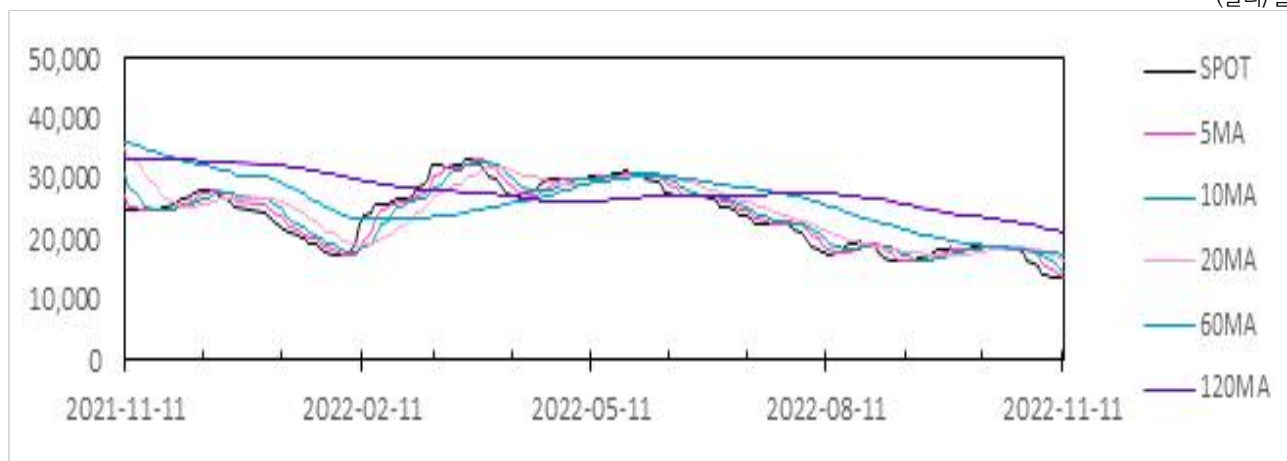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주 대비 135.9p 하락한 1,443.3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 지속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주요 항로 운임의 계속된 약세가 이어져 지난주 대비 8.6% 하락한 1,443.3p를 기록함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선사들의 공급조절이 운임 하락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측함(CTS)
- 유럽 및 북미 지역 수입의 급격한 감소, 재고 증가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러 요인들로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수요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Sea-Intelligence)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11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1,443	-136	1,443	5,110	3,831	2,570	4,956	3,769
운임	유럽항로	1,478	-285	1,478	7,797	5,459	3,651	7,714	6,078
	미서안항로	1,632	-49	1,632	8,117	6,340	3,931	7,444	5,317
	미동안항로	4,223	-667	4,223	11,833	9,351	4,679	11,976	8,353
	한국항로	256	-2	253	456	333	184	386	286
	일본항로	318	21	281	362	319	251	340	285
	동남아항로	346	-9	346	1,537	935	840	1,49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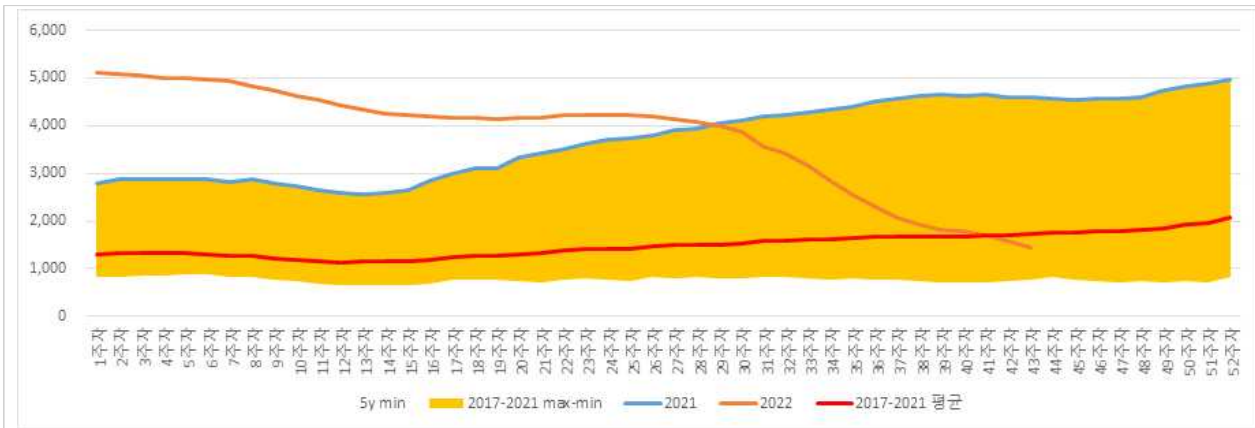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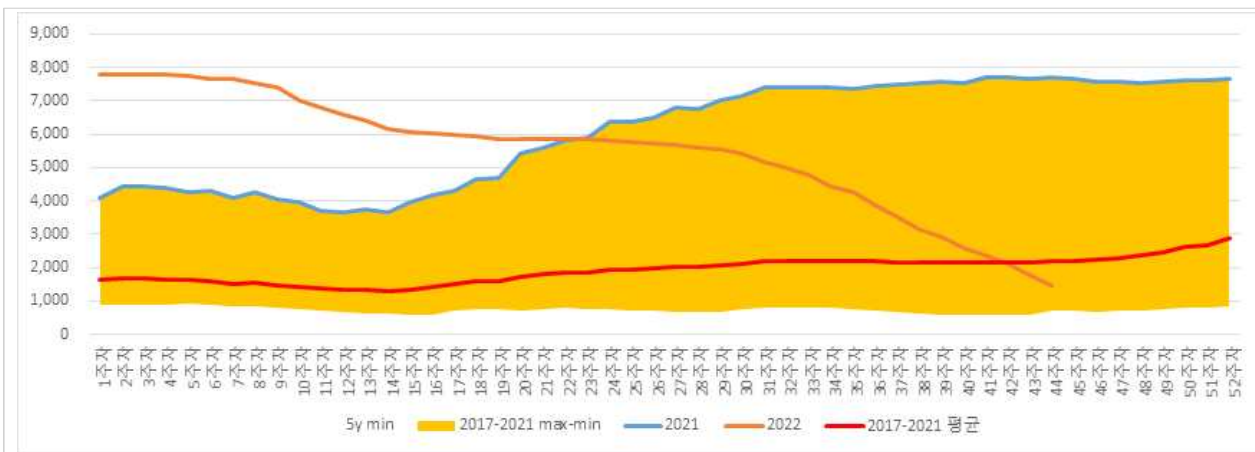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11월 2주('22.11.14~'2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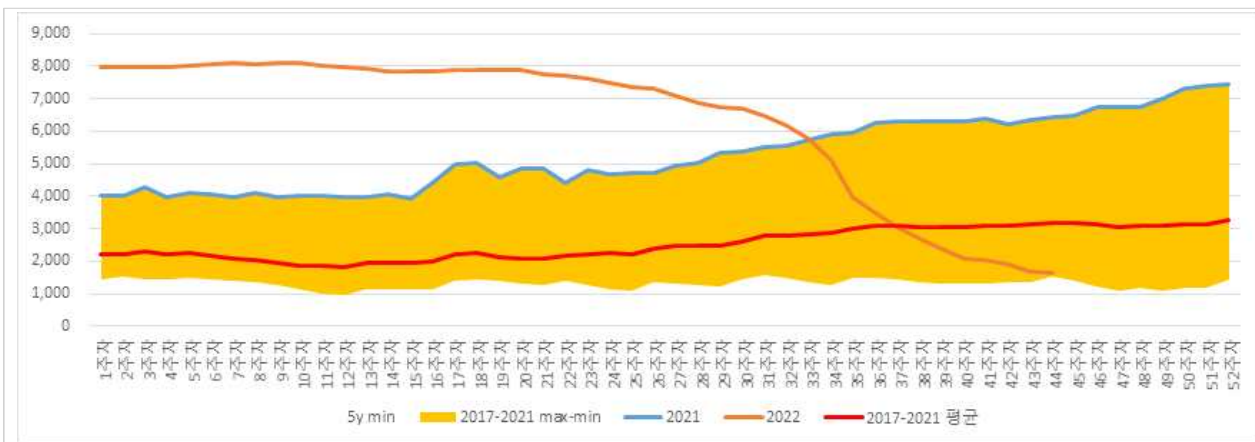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11월 1주) 대비 8.4p 상승한 111.2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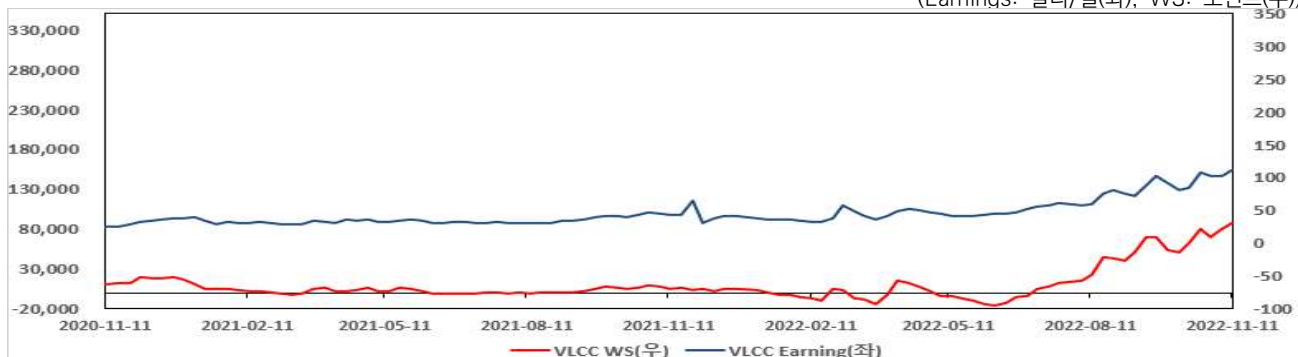
구분	11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111.2	▲	8.4	8.2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62.0	▲	4.5	7.8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112.5	▲	5.0	4.7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112.5	▲	7.5	7.1 %

(동향)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완화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과 톤마일 증가가 시황 상승 유도

- 중국이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2일 단축하고(기존 10일 → 8일로 축소) 확진자가 발생한 항공편의 일시 운항 정지 규정도 철회하는 등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발생함
- 11월 현재,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하루 180만 배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하루 45만 배럴에 달하며,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역대 최대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하루 61만 9천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됨
- 그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온 국가들이 대러 제재로 원활한 원유 수입이 곤란해지자 중동, 미국 등 타 산유국으로 공급망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톤마일 증가가 유조선 시황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11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항로(TD3C)	운임지수	111.2	8.5	32.4	111.2	59.1	28.4	65.1	35.4
	평균 수익	76,906	9,756	-24,517	79,715	10,113	-6,779	14,966	-526
VLCC	1년 용선료	42,50	500	15,000	43,000	22,850	18,500	24,125	20,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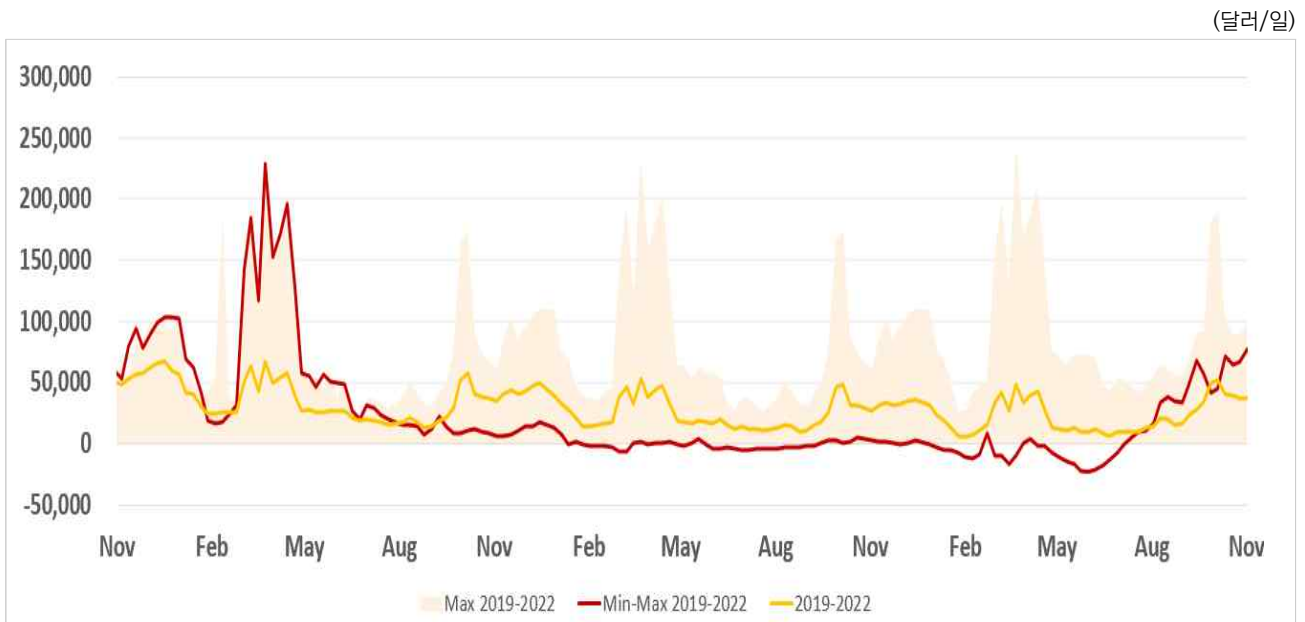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1 유조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붉은색)은 전주 대비 14.5% 상승하며 10월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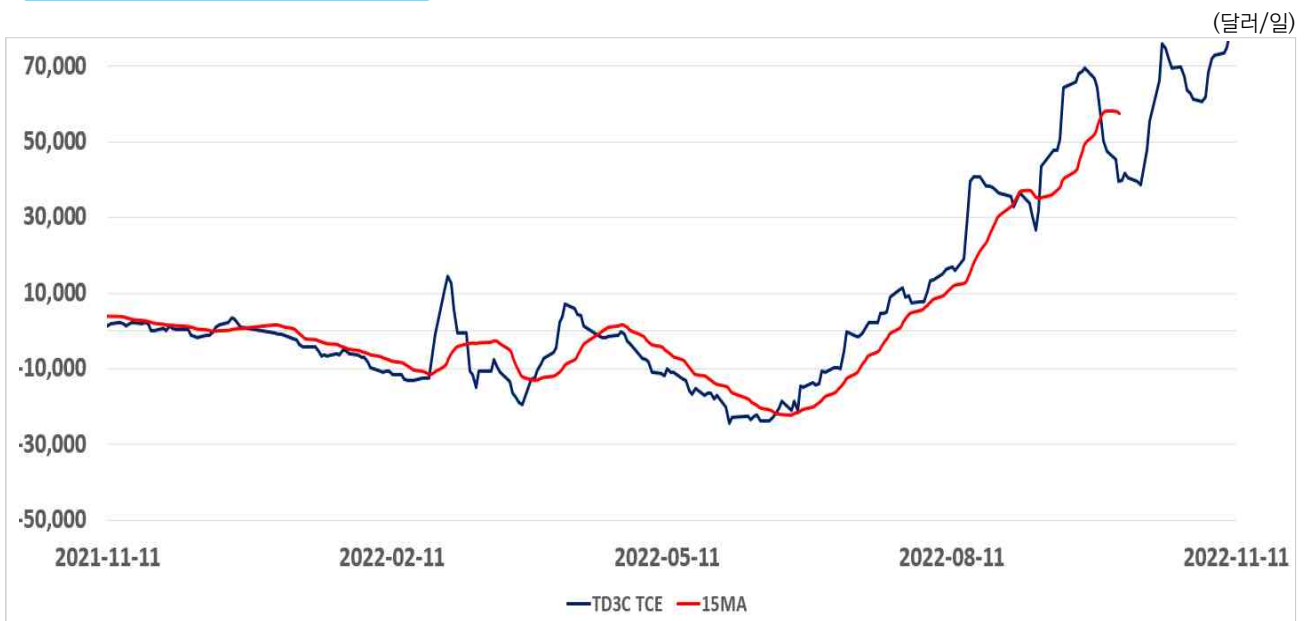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이번 달 들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며 올해 최고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I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11월 1주) 대비 10.3p 하락한 243.9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11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43.9	▼	10.3	4.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70.0	▼	5.0	2.9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15.0	-	0	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230.0	▼	25.0	9.8 %

(동향) 각 국의 통화긴축 영향으로 인한 수요 둔화와 글로벌 석유제품 타이트한 수급 지속되면서 시황 약세

- 각국 긴축기조 강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 대비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진 악화 등으로 석유제품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에너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에서 가스 대체제로 경유가 부각 되면서 동절기 경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며 석유제품 전반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PEC 감산 영향과 다음 달 12월부터 도래하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내년 2월 석유제품 제재 등을 앞두고 유럽 등을 비롯한 석유제품 비축 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시황 약세를 유도하는 등 경유 수급의 풍선효과로 인해 대체제인 휘발유, 윤활유 등의 수급에도 차질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11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43.9	-10.3	120.1	447.1	273.4	80.6	160.0	120.1
	평균 수익	36,177	1,705	6,216	72,180	35,732	-96	15,345	7,642
MR	1년 용선료	27,500	0	12,357	27,500	19,247	11,625	13,000	12,445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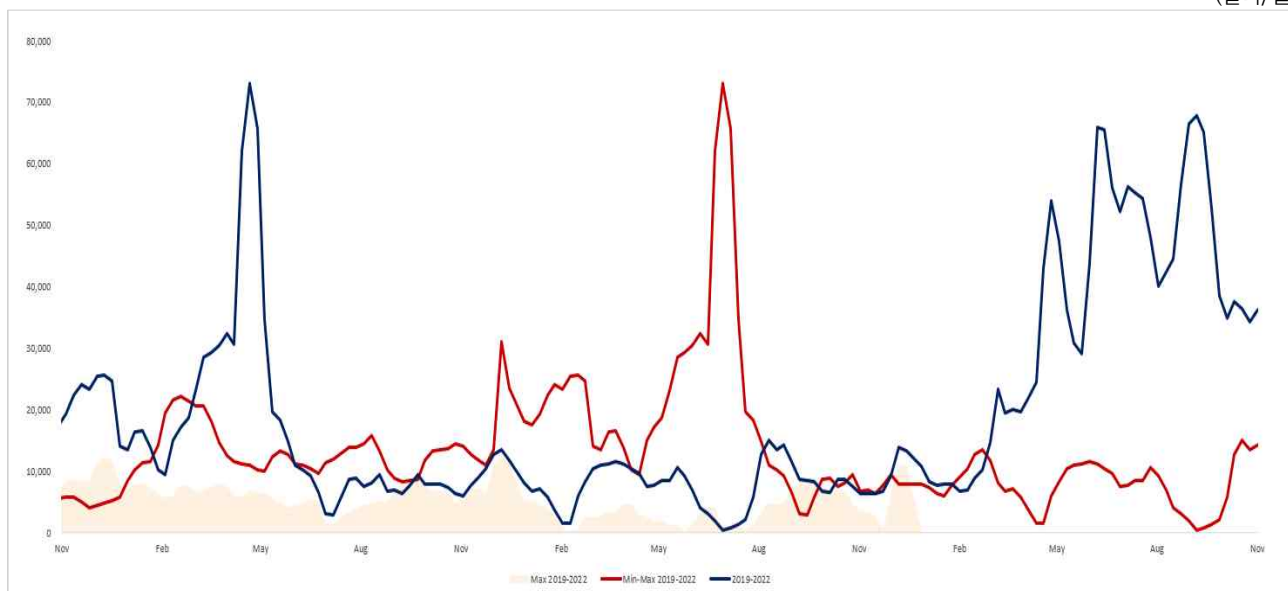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약보합세를 기록 중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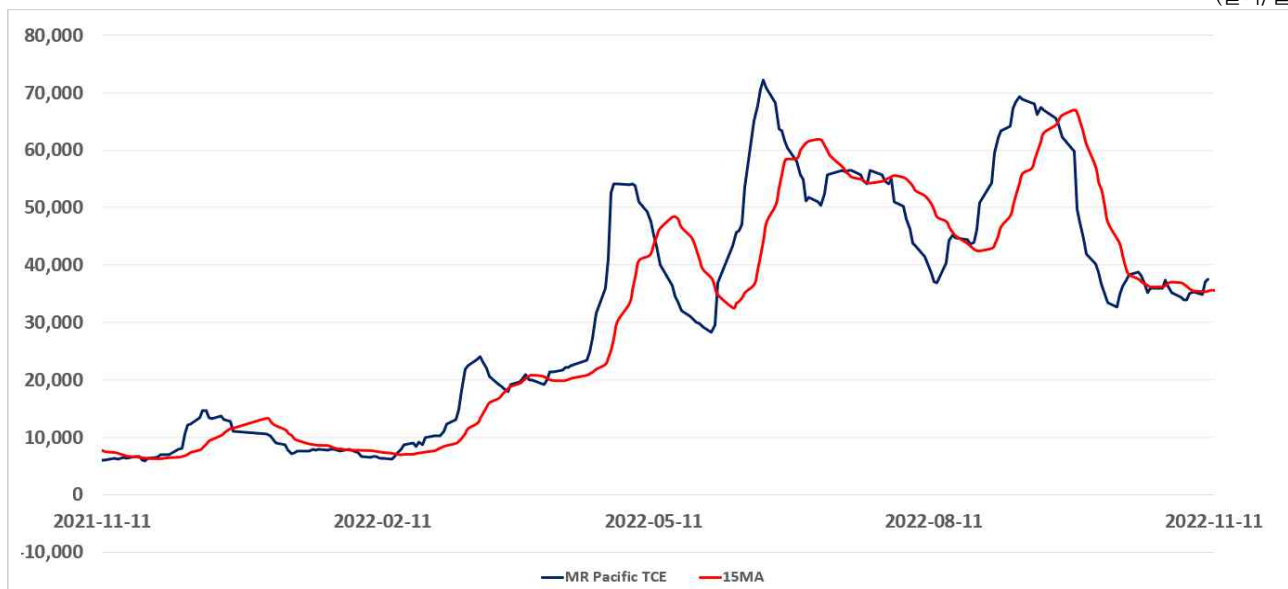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은 9월 말 이후 계단식 하락추세를 보이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며 약보합세를 유지함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4.25로 전주와 동일함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75.0으로 전월 대비 11.3포인트 하락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2.11.01~'22.11.11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31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Azzura	2004	52,050	DWT	2022-11-11	12	Nomikos Transworld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Celsius Rimini	2009	53,603	DWT	2022-11-11	24.5	Celsius Shipping	Clients of Doria Shipping Ltd
Bulk	Navios Aldebaran	2008	76,529	DWT	2022-11-11	14	Ehime Kaiun	Undisclosed interests
Bulk	Navios Obeliks	2012	181,415	DWT	2022-11-11	29	Nissen Kaiun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Promise	2009	84,014	cu.m.	2022-11-11		Avance Gas	Undisclosed interests
TankChem	Golden Camellia	2021	34,783	DWT	2022-11-10	34.5	Seacon Ship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Lewek Alphard	2014	5,126	DWT	2022-11-10		EMAS Offshore	Mediterranean interests
TankChem	Woojin Chems	1999	12,675	DWT	2022-11-10		Woo Jin Shipping	Clients of Berlian Laju Tanker
Bulk	CMB Partner	2016	81,805	DWT	2022-11-09	29	Bocimar NV	Greek interests
Tanker	Erawan 10	2003	47,999	DWT	2022-11-09	12	Pelayaran Sakti	Far Eastern interests
Bulk	Key Light	2012	83,027	DWT	2022-11-09	23	Hachiuma Steamship	Japanese interests
Tanker	Nordic Tristan	2007	73,604	DWT	2022-11-09	20.5	Nordic Hamburg	Undisclosed interests
Bulk	Ocean Rosemary	2013	82,265	DWT	2022-11-09	21	Hongsun Shipping	Greek interests
Ro-Ro	Exporter*	1991	1,278	Lane m.	2022-11-07		Eckero Line	Clients of Norwest Ship Magt.
Ro-Ro	Shipper*	1992	1,278	Lane m.	2022-11-07		Eckero Line	Clients of Norwest Ship Magt.
Bulk	Trudy	2009	30,790	DWT	2022-11-07	12.5	MINSHIP	Swedish interests
Bulk	True Patriot	2016	180,967	DWT	2022-11-07	40	Dakota Hold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Aquafortune	2011	174,725	DWT	2022-11-06	27	Carras Ltd.	Undisclosed interests
Bulk	Bulk Carina	2016	57,819	DWT	2022-11-06	22	Chofuku Kisen KK	Greek interests
Bulk	Caro Padre	2012	63,301	DWT	2022-11-04	21	Total Shipmgmt	Chinese interests
Bulk	Edward N	2011	176,216	DWT	2022-11-04	23	Neu Seeschiff ahrt	Taiwanese interests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Gas C'rier	Epic Balta	2000	6,311	cu.m.	2022-11-03	6	BW Epic Kosan	Clients of Siam Lucky Marine
Gas C'rier	Kool Baltic*	2015	170,200	cu.m.	2022-11-03		Eastern Pacific Shpg	Clients of CoolCo
Gas C'rier	Kool Boreas*	2015	170,200	cu.m.	2022-11-03		Eastern Pacific Shpg	Clients of CoolCo
Gas C'rier	Kool Firn*	2020	174,095	cu.m.	2022-11-03		Eastern Pacific Shpg	Clients of CoolCo
Gas C'rier	Kool Orca*	2021	174,095	cu.m.	2022-11-03	660	Eastern Pacific Shpg	Clients of CoolCo
TankChem	PSS Energy*	2001	37,243	DWT	2022-11-03	25	Tehama Shipping	Far Eastern interests
TankChem	PSS Vitality*	2002	37,297	DWT	2022-11-03		Tehama Shipping	Far Eastern interests
Bulk	Waal Confidence	2009	33,387	DWT	2022-11-03	15.2	Orient Shpg Rot.	Greek interests
Container	X-Press Kangchenjunga	2008	2,690	TEU	2022-11-03		Sea Consortiu m	Clients of MSC
Bulk	Jian Da	2005	52,677	DWT	2022-11-01	13.2	Jierui Shpg	Turkish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2.11.11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11월 평균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18.0	18.0	18.0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90.0	1.0	89.5	70.0	90.0	79.0	63.0	72.0	69.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5.0	-5.0	25.0	25.0	56.0	47.9	14.0	44.0	3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4.5	-0.5	34.8	34.3	37.0	35.7	25.5	34.3	30.9
유조선	VLCC	120.0	0	120.0	114.0	120.0	117.3	85.0	112.0	98.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5	0.0	42.5	40.0	43.0	42.3	30.0	40.0	35.8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11.8	7.3	408.1	380.0	688.8	533.0	311.3	488.0	396.2
	Singapore	420.3	12.3	414.1	378.8	773.5	545.7	324.8	523.5	416.5
	Korea	456.75	-1.3	457.4	435.8	784.5	601.5	361.8	574.5	445.9
	Hong Kong	441.8	-5.3	444.4	413.8	803.8	572.1	325.8	529.0	426.8
VLSFO	Rotterdam	636.3	6.8	632.9	567.0	980.0	756.3	387.8	605.8	505.6
	Singapore	691.3	-6.8	694.6	639.5	1137.8	830.4	413.0	642.5	535.1
	Hong kong	706.3	-16.0	714.3	629.0	1189.3	845.0	404.5	627.3	533.2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105.4	233.7	180.6
	중국産	123.5	-6.1	127.2	-	194.5	145.1	-	264.6	19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25.6	1.6	123.4	-	141.3	123.2	-	244.3	127.7
	중국産	141.1	1.8	138.6	-	192.9	142.4	-	420.7	182.4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757.5	165.8	-	501.1	272.0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529.5	137.2	-	577.7	337.4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450.0	-12.25	1447.0	1,344	1,769	1,549.3	1,188.5	1,642.5	1,372.4
	밀(국제)	813.8	-34.0	837.1	731.5	1,425.3	924.6	601.8	856.0	702.5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